

“언제든 납세자보호관 찾아주세요”

무주군,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진행

무주군이 납세자 권리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를 보호한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지방세 민원 및 납

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김정미 실장은 “지난 5년간 297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했다”고 밝히며 “지방세와 관련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거나 어렵게 처리를 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연기나 필요할 때 언제든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

원을 위한 제도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데 보다 주력할 방침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 등이 미흡해 감면받지 못한 내용들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063-320-2172) 또는 방문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집중호우 수난사고 대응 총력

호우 피해 최소화 위해 비상근무체제 유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장마철을 맞아 전북 곳곳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수난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력을 풀어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전북 곳곳에 최대 5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장수소방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난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난 구조장비 등 보유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수난사고 취약지역 점검 및 안

전시설물을 점검 △관내 하천·상습 침수지역·산사태 위험지역 순찰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장수소방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장수군 곳곳 전보대 전도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소방력을 총동원해 나무제거, 배수로 정비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력을 총동원해 예방 및 대응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나무 제거 모습

진안군, 전지훈련 성지로 각광

전주용소중 등 4개 학교 역도 전지훈련팀 방문



진안군은 오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24일간 전주 용소중학교 역도선수단 전지훈련팀이 방문한다.

전주용소중(7.20.~8.12.)은 남중부와 여중부 모두 역도 3관왕을 배출한 기

록이 있는 역도 명문중학교다.

이어서 전주 우아중(7.31.~8.4.)과 순창북중(8.7.~12.) 그리고 순창고(8.7.~12.)가 진안군에 전지 훈련 차 방문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이번 전주용소중 역도팀 진안 방문으로 호우경보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렇게 각 학교들의 전지훈련이 이어지는 데는 지난해 전지훈련 흥보책자를 전국 지자체 및 주요 실업팀, 학교 등에 배포한 스포츠미케팅이 유효했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고원지대에서 기온과 습도가 높지 않아 훈련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고 심신 단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춘성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하며 이번에 진안을 찾아온 모든 선수분들의 기록 경신과 함께 누적된 피로가 힐링을 통해 완화되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알뜰관광 지원사업 실시

관광객 일정금액 이상 관내서 소비 후 홍보하면 비용 지원

“진안 여행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진안군은 관광홍보와 관내 관광사업체 매출증대를 위해 ‘진안군 알뜰관광 지원사업(2차)’을 실시한다.

개별관광을 선호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일정금액 이상을 관내에서 소비하고 SNS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진안군 관광홍보를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진안군 알뜰관광 공고문 확인하여 사전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관광을 실시하고, 2개소 이상 업체에서 10만원 이상 사용 시 5만원을, 3개소 이상 업체에서 20만원 이상 사용 시 10만원, 4개소 이상 업체에서 3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15만원을 지원해주며 사후에 관광홍보 인증과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0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20만원 이상 사용 시 7만원을 지원해줬던 1차 때보다 지원금액이 늘어난 수준이다.

한재길 관광과장은 “진안군 알뜰관



광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2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관광과(063-430-2503)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

장수군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1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절차는 △지원사업 신청 △현장 방문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최종 대상자로 선정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진행되며,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 우선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8월 1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착수보고회

장수군은 지난 17일 장수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수군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표홈페이지 포함 장수군 신하 총 9식의 웹사이트에 대해 디자인, 콘텐츠, 소스 등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작성 및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군은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자유롭게 회면을 표출할 수 있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화면구성,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DB 암호화시스템 및 개인정보차단 등 보안을 강화해 안전한 홈페이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립한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